

이 달의 기사

지난달 사료가격의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원료확보량은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어느때 보다 최근 양계가들은 사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을 집약해서 게재한다.

★사료용 옥수수 입하(入荷)

—2만7천5백톤 부산, 인천항에—

6월초 미국에 발주한 옥수수 2만3천톤이 7월 27일 인천항에 그리고 30일엔 4천5백톤이 부산항에 입하 되었다. 이로서 올해 재정차관에 의한 6만7천톤 계획량중 절반 미만이 수입 완료된 셈이다. 이번 도입된 옥수수는 연초의 가격인 톤당 96달러로서 총 2백64만 달러이며 나머지는 8월중 들어올 예정인데 KFX로 연내 도입될 13만톤과 함께 20만톤의 옥수수를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6월 13일 닉슨의 농산물 수출규제조치에 따라 묶인 재정차관 계획분 13만3천톤은 미국의 추수 결과를 기다려 내년초에 도입될 것 같다.

★미(美) 콩 금수(禁輸) 내달 해제

「얼 L 부츠」 미 농무장관은 7월30일 일본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외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현행 콩수출 통제가 오는 9월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급년도 가을콩 수확이 전년비 24%가량 증가할 것이며 콩수출 통제조치가 오는 8월31일 이후 연장 실시치 않을 것이며 매점매석이나 급격한 수요변동이 없는 한 옥수수와 밀 및 다른 농작물로 통제조치가 확대되지는 않으리라 한다.

★미 농산물 금수완화

미 상무성은 지난 7월27일 41개 농산품과 식용 및 동물사료로서 콩과 대체할 수 있는 일반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실시했다. 지난 7월 5일 41개 품목의 수출제한을 발표하면서 41개 품목은 콩과 그 대체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출 제한조치가 필

요한 것이라 설명했었는데 이번 수출 허가제는 28일부터 발효되며 이 조치에 따라 6월13일 이후 발주분에 대해 전량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미 상무성은 콩과 면실유등과 같은 9개 품목은 7월20일전에 발주받아 아직까지 수출되지 않은 전량에 대한 선적이 허가되었다.

또한 나머지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1972년 7월에서 9월까지의 수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을 선적할 수 있도록하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출제한조치는 10월 1일에 완전히 철폐될 것이라 한다.

★콩, 밀, 옥수수등 필요한 전량 수출보장받아

미국의 41개 농산물 금수조치와 관련 대미 농산물 구매교섭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이득룡 전 농수산차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콩, 옥수수, 소맥 등 수입은 전량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신곡출회 이전이라도 콩은 1만톤내의 소맥과 옥수수는 전량을 수입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으며 신곡출회 이후 미측사정이 수출통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차질없이 공급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한다. 또 소맥은 KFX 자금으로 10만톤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현재 미도입분 42만톤과 미도입 옥수수 13만3천톤에 대해서는 이미 구매계약을 체결 도입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미국의 우지금수 해제에 따라 우지대신 수입키로 했던 유채실(油菜實) 도입을 억제키로 했다고 한다.

★미 소맥 수출제한 검토

미국의 소맥값이 지난 8월 6일 시카고 곡물

거래소가 곡물가격 거래를 시작한 이후 1백50년만에 처음으로 부셸당 4백달러로 앙등했으며 미농무성이 이에 따라 소맥의 수출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소맥값이 이처럼 전례 없는 상승을 기록한 것은 1973년~1974년 미국 곡물 수확량 가운데 수출 가능량이 거의 전부 이미 해외 판매 계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은 것 같다. 미 상무성의 수출 보고서는 금년에 수확될 곡물의 반 이상이 이미 외국에 판매되기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시장에서 매기(買氣)가 급상승 되고 있다.

특히 소맥은 금년 수확량에 대한 해외구매가 이미 시작되어 소련과 중공이 당초 목표량을 전부 사들였으며 일본도 상당량을 사들였다고 한다. 미국산 소맥의 대량수입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수단, 콜롬비아, 이집트 등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상당량을 미국의 소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맥값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에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케 될 것 같다.

한편 시카고 소맥거래소의 소맥가격은 6일 폐장거래(閉場去來)에서 부셸당 4.04\$에 달함으로써 4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 같은 소맥가격은 1차대전후 악성인플레이가 계속되던 1919의 기록적인 부셸당 3.50달러를 훨씬 능가하는 고가이다. 소련이 때미 소맥수입을 시작하기 전인 72년, 6월의 소맥가격은 부셸당 1.60달러에 불과했다.

★ 국제 소맥값 폭등

—한달동안 35% 폭등—

신곡 출회기 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소맥시세가 폭등 지난 1개월간 35%나 올랐다. 최근의 국제 소맥시세는 톤당 1백 30달러선에 비해 35%나 폭등했다. 이같은 현상에 따라 농수산부는 톤당 86달러선을 기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분업계에 보조해 주는 정책이 불가피할 것 같다.

★ 구공시(歐共市)선 소맥수출금지

구공시(E.E.C) 위원회는 8월 7일 9개국 E.E.C

사정을 고려, 연(軟) 및 경(硬)질 소맥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 구공시(歐共市) 연질 소맥에 수출세

유럽공동시장(E.E.C) 집행위는 8월 14일 세계 곡물가 앙등에 대한 대책으로 연질소맥을 수출하는데 톤당 45.60달러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유럽의 연질 소맥가를 세계시장 가격에 맞추기 위한 것인데 이는 전면 중지할 것은 아니나 수출량의 격감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이날 동물사료인 옥수수과 보리수출에도 톤당 20.40달러의 수출세 부과를 결정한다.

★ 미소맥가 사상 최고가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소맥시세는 8월 14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7kg(부셸)당 5달러선(톤당 1백88달러)을 넘어섰다. 미네아 폴리스 거래소에서는 이날 월인도분이 부셸당 5.07달러로 약 1백만 부셸이나 거래되었다. 이날 전장 개장시세부터 이미 허가된 최고가를 20센트나 상회 4.94달러로 올랐으며 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매석(賣惜)으로 5.07달러까지 올랐다. 옥수수값도 계속 강세를 보여 8월 14일 아침의 시카고 시세는 부셸당 3.4775달러로서 역시 상한선을 넘었다.

★ 초지(草地)자금 전액지원

김종필 국무총리는 7일 강원도 평창군 삼양목장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정부에서 축산업자에 융자해 주고있는 축산자금의 상환기간을 현재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5년 분할상환 하도록 지시하고 축산업에 투자하는 업자들의 투자액에 대한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